

“시대를 초월해 ‘5월’과 연대하는 것 같아요”

‘맨부커상’ 수상 한강 작가
광주비엔날레 포럼에서
5·18 소설 ‘소년이 온다’ 낭독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들려 오는 가냘픈 목소리에 그녀는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중략) 여러분, 지금 나와 주십시오.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은 소설가 한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정적이 휩싸였다. ‘크고 작은 모두의 힘으로’를 주제로 열린 ‘2016 광주비엔날레 포럼’에 참가한 한강씨는 이날 소설 ‘소년이 온다’, ‘희랍어 시간’, ‘흰’을 낭독했다. 또 최빛나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소설을 쓸 당시 감정, 배경 등을 들려줬다.

‘제식주의자’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온다는 소식에 거시기홀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찼다.

한강 작가는 “이 구간(도청 함락 내용)은 광주에서 읽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럼 참여해 소설을 낭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청 함락 부분을 다 읽은 한강 작가는 몇초간 숨을 고르며 감정을 추스린 뒤 5장을 이어서 낭독했다. 고문 생존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5장이 가장 쓰기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 광주 이야기가 악몽의 일부분인 것 같았다”는 그는 “20대 시절 일기를 쓸 때 항상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자를 도울 수 있는가?’를 먼저 써놓았다”고 회상했다.



지난 2일 '2016 광주비엔날레 포럼'에 참여한 한강 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 일부분을 낭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에도하려 애쓰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사를 넘어 그 시절과 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혹, 폭력 속에서 존엄으로 나아가게 해준 것은 소년이었습니다.”

소설 ‘흰’까지 낭독한 한강 작가는 “제 어머니가 처음에 난 아기가 있었다”며 “제 언니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아기는 조산으로 태어나 2시간만 생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이 온다’ 마지막 문장 ‘죽지 말아요’는 당시 어머니가 아기에게 반복해서 말했던 ‘죽지마라 제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제 언니가 살았다면 아마 난 여기에 없었겠죠. 소설 ‘흰’은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았다고 생각하며 썼어요. 지난 4월 소설을 출간하며 했던 전시와 퍼포먼스도 언니를 위해서 했습니다.”

한강 작가에 이어 성소수자 마음을 담은 책 ‘마이너리티 코핀’ 저자 신지영 씨가 나서 ‘한밤 속 점착-코핀과 코핀’을 주제로 발표했다. 후광, 가르시아 도리 참여작가는 ‘의도하지 않는 공간을 향해’, 안드레아 필립스가 스웨덴 고텐버그 대학 예술학과 교수는 ‘어떤 크고 작은 힘들을 가지고 있는가’ 주제 발표를 했다.

3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중화운동기록관, 광주국제교류센터, 미테-우그로에서 ‘가치, 지속성, 스케일’을 주제로 소그룹 워크숍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무등산 등반 후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우재길미술관 등 외부 전시장을 방문하고 페르난도 가르시아 도리와 한세봉 두레 주민들이 참여한 연극 ‘도롱뇽의 비탄’을 감상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이번 포럼 진행 과정과 논의 내용을 도록으로 묶어 출판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33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 배경과 의미

소비자 안전·고객만족 중시 ‘초강수’

국내외 250만대 1조5천억원 육박

빠른 대처로 이미지 상승

19일부터 새 제품 교환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 논란이 일었던 갤럭시노트7(이하 갤럭시7) 250만대를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대대적인 리콜(recall)을 단행했다. 리콜 대상 물량만 총 250만대로, 비용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동진 무전사업부장(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입시기와 상관없이 갤럭시7을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에 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교환 방식의 리콜을 선택, 환불까지 가능하도록 한 ‘초강수’를 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고객만족을 중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비록 단기적인 손실은 크지만 발 빠른 대처가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쌓고 브랜드 이미지를 오히려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자체 원인조사 결과 갤럭시7의 폭발원인은 특정 협력사의 배터리 제조공정 중 오차가 생기면서 절연기능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삼성서비스센터를 통해 갤럭시7을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19일 이전에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



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다른 제품을 임시로 대여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1조5000억원이라는 리콜 비용은 물론, 소비자와 통신사에 제공할 교체용 신제품을 생산하고 발송하는 약 2주간 한국·미국을 포함한 10개국에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빨라진 대선 시계’ 1면에서 계속

◇야권 대선 조기 접화 왜?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데는 더민주의 8·27 전당대회 결과 ‘진문(文)’의 압도적인 우세가 확인된데다 문 전 대표가 지역방문을 이어가는 등 대권 행보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세가 계속된다면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잠룡들의 행보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절대 강자가 없는 현 정치판에서 일종의 ‘선점’ 효과를 노리고, 대선 후보군에 대한 평가가 오가는 추석 밤상에 이름을 올리려는 선제적인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제3지대론 vs 플랫폼론 성사 가능성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자신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뒤 “(당의) 문호

를 활짝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을 ‘대선 플랫폼’으로 개방하고, 그 안에서 다른 주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총선 민심이 저희를 세워주셨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반한다”며 사실상 국민의당 중심의 새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손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택하지 않고 ‘제3지대’를 만들어 새누리당 비박계, 더민주 비주류 등을 아우르는 형태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손 전대표가 제3지대에서 새로운 통합의 깃발을 들고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주자들을 모아 이른바 ‘국민후보’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방법을 도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테레사 수녀 선종 19년만에 가톨릭 성인 추대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친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선종 19년 만에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교황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과 시성미사를 거행했다. 이날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에는 전 세계의 약 10만 명 이상의 신도가 모여 성스러운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

테레사 수녀가 거의 평생을 바쳐 봉사한 인도가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 등 정부 각료 12명을 대표 사절단으로 파견했고, 13개국 정상과 바티칸 주재 외교 공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테레사 수녀의 삶을 기리듯 가난한 이들 1천500명에게 수녀들이 피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교단을 넘어 20



세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지만 당시엔 오스만 튀르크에 속했던 스크페에서 1910년 알바니아계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다. 1928년 아일랜드에서 수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듬해 인도로 넘어가 약 20년 동안 인도 학생들에게 지리 과목을 가르치다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극빈자, 고아, 죽음을 앞둔 사람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로 19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1997년 9월 5일 인도 동부 콜카타에서 선종했다.

/연합뉴스

전남·전북 5년간 국도 217km 건설

익산국도관리청 1조9232억원 투입

별교~주암 신설·담양~곡성 개량

호남지역 국도가 앞으로 5년간 217km

늘어난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4일 “국도교통부가 2020년까지 총 1조9232억원을 들여 전남·북 지역에 도로 217km(총 21

km)를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지도(國支道)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줄임말로 중요 도시와 공항·항만·공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다.

계획안에 따르면 광광인프라 구축, 지역행사 지원, 병목지점 개선 등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부안~흥덕, 무주~설천, 별교~주암 등 3건(총 49.7

km)에 6412억원을 투입한다.

또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익산 서수~평장, 정읍 농소~하모 등 2건(총 20km)에 4096억원을 들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한다.

선형불량, 급커브, 급경사 구간 개선을 위해 고창 해리~부안, 완주소양~진안, 담양~곡성, 신장~북용 등 14건(총 147.6km)에 8724억원도 투입한다.

하대성 익산국도관리청장은 “호남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제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사람을 찾습니다

• 162cm의 아연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게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청,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곤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정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은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0평 ▶ 감정이 21억3천 원 최저가 18억7천만 원
- 서구 양동 건물 425평 대지 75평 숙박시설 방 40개 지하층~지상 5층 ▶ 감정이 11억 최저가 6억 (감정가의 45%)
- 광산구 신창동 신축 3층원룸건물 108평 대지 70평 방 11개 수문조, 산장준근 위치 및 건물착상 ▶ 감정이 4억7천 원 최저가 3억9천 원
- 서구 쌍촌동 2중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 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이 11억9천 원 최저가 8억3천 원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인근 1층근린상가 건물 85평 대지 157평 투자최적 ▶ 감정이 6억5천만 원 최저가 6억5천만 원
- 서구 치평동 6층근린시설 세정아울렛인근 건물 280평 토지 66평 상권좋은, 커피전문점운영중 ▶ 최저가 9억5천만 원
- 동구 동명동 3층근린주택(상가+주택) 아시아문화전당부근 건물 60평 대지 47평 건물상태 좋음 ▶ 최저가 2억3천만 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3층건물 305평 대지 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인근 계획관리지역 ▶ 감정이 8억9천 원 최저가 3억2천만 원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38차선 대로점 상영지역 대지 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현영 ▶ 거래가 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자본 없이도 채테크 가능!!

교 육 특 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없이도 공장을 소유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7. 18(금) ~ 2016. 9. 9(금)
- 수업기간 : 2016. 9. 8 ~ 2016. 12. 8
- 수 강 료 : 18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1230-7700 ~ 2 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